국내
마감시황

2025. 12. 5.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외국인·기관 매수세에 코스피 반등

외국인·기관 수급에 힘입어 코스피 4,100pt 선 안착

자동차·전력기기 강세, 바이오·로봇 약세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4,100.05pt (+1.78%)	924.74pt (-0.55%)	580.81pt (+1.94%)
달러-원 환율	**韓 10 년물 국채 금리**	**S&P500 선물**
1,469.30 원 (-4.3 원)	3.3580% (-1.8bp)	6,881.75pt (+0.22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-21,155 억	+3,198 억	-1,023 억
외국인	+10,007 억	-1,321 억	+8,397 억
기관	+11,527 억	-1,864 억	-7,228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.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는 다시 4,100pt 선으로 올라왔습니다. 반면, 바이오주 하락 영향으로 코스닥은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이날 KOSPI는 1.78% 올랐고, KOSDAQ은 0.55% 내렸습니다.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6.1조원, KOSDAQ은 12.7조원을 기록했습니다.
- 외국인은 KOSPI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. 이들은 KOSPI에서 전기/전자와 운송 장비/부품 업종을 매수했고, 금융과 제약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기관은 KOSPI를 1.1조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. 이들은 전자/전기와 운송 장비/부품 업종을 매수했고, 제약 및 오락/문화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, 미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방침에 자동차 업종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강조하자 원전과 건설 업종이 상승했습니다. LG그룹이 MS와 차세대 데이터센터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그 외 반도체와 전력기기 업종이 올랐습니다. 반면,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머크 키트루다SC의 유통·판매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탓에 알테오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이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, 바이오 업종 전반이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일부 로봇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현대차(+11.11%), 현대건설(+9.96%), LG전자(+5.17%)가 올랐고, 알테오젠(-12.04%), 삼성에피스홀딩스(-7.54%), SK스퀘어(-3.36%)가 내렸습니다.

Samsung Securities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